

부부갈등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순차적 이중매개 효과*

The Effects of Interparental Conflict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Maternal Stress and Inconsistency

1차원고접수: 2023.07.10. 수정원고접수: 2023.08.28. 최종게재결정: 2023.09.15.

김은희¹ · 이완정²

¹인하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학전공, 박사수료

²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

Kim, Eun-Hee¹

Lee, Wan-Jeong²

¹Div. of Child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Inha University

²Dept. of Child Psychology, Inha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유아의 행동문제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이 순차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해봄으로써 가족체계에서 부부간 하위체계의 여파가 부모-자녀 하위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편의표집 한 9개의 수도권 유치원에서 3~5세 유아의 어머니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25부를 연구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PROCESS macro v4.2 프로그램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 어머니의 스트레스, 비일관적 양육 행동과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부부갈등은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비일관적 양육 행동이 증가하여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증가시키는 순차적인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부부갈등은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며,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순차적 이중매개를 통해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토대로 유아의 행동문제를 줄이기 위한 개입의 방향으로 부부갈등을 중재하는 외에 부부간 문제가 여파를 미치는 부모-자녀 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개선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부부갈등, 어머니의 스트레스, 비일관적 양육 행동, 유아의 행동문제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terparental conflict on young children's behavior problem, and to clarify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mother's daily stress and inconsistent parenting behaviors. Data from 325 mothers of preschoolers in a metropolitan area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and SPSS Process macro ver. 4.2.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terparental conflict, mother's daily stress, and mother's inconsistent parenting behaviors were related to young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Second,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maternal stress and inconsistency were show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 The results show that the discord in interparental relationship spills into mother-child relationships through maternal stress and inconsistent parenting and affects children's behavior problems in conditions of spillover.

Keywords interparental conflict, maternal stress, inconsistent parenting, behavior problem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가 성장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타내는 양상 중 하나는 내재화,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내재화 행동문제는 위축, 우울,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경험되며, 외현화 행동문제는 또래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충동적, 공격적, 거부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는 이른 시기부터 시작(Egger & Angold, 2006)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동이 성장해도 지속되는 경향이

* 이 논문은 2023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임.
본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to 이완정 (Lee, Wan-Jeong)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 (Dept. of Child Psychology, Inha University) E-mail, wanlee@inha.ac.kr

Copyright © 2023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높다고 밝혀지고 있다. 가령, Mesman, Bongers 그리고 Koot(2001)의 종단자료 분석 연구에서 2 ~ 3세에 내재화, 외현화 행동문제를 나타낸 아동은 10 ~ 11세에도 여전히 행동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rgan, Farkas 그리고 Wu(2008)의 종단자료 분석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전년도에 내재화,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인 유아들이 3학년, 5학년에도 행동문제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 경향은 남아이거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동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는 성별 등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모두 있지만, 이 중 일반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환경요인으로는 가족의 특성을 들 수 있다. 특히 영유아기에는 주 양육자들이 자녀의 정서 사회화(Denham, Mitchell-Copeland, Strandberg, Auerback, & Blair, 1997; Eisenberg et al., 1992), 정서사회기술 발달(Kopp, 1989; Thompson, 1994)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Halpern(2004)은 취학 전 유아에게 있어 가족이란 존재는 이들의 정서적 문제나 행동적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을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환경 맥락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간 가족의 정서적 분위기나 관계의 질은 아동의 행동문제 지속과 관계가 있다고 밝혀져 왔다. 가령, 부부가 불화하거나 부부 간 갈등을 겪는 가정의 아동은 비교집단 가정의 아동과 비교하여 행동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수경, 2021; 국정연, 최지영, 2022; 김동진, 전효정, 고은경, 2018; Dadds & Powell, 1991). Cox, Paley 그리고 Harter(2001)는 가족 내 하위체계 간에 분위기, 정서, 행동이 서로 전이되며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여파(spillover, 넘쳐흐르는 현상)’라 개념화시켰다. 즉 가족체계이론에서 다양한 외부환경이 가족 체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가족체계 내에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 등 여러 가지 하위 체계들이 중첩되어 있고 이 하위체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Kerig, 2019)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의 물리적 안전성, 경제위기 등과 같이 가족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는 단일

체계로서의 가족 단위가 중요할 수 있지만, 가족 내 관계에서는 가족을 단일체계로 간주하기보다는 가족 내 역동이 하위체계 간 관계에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위체계 간 여파의 관점에서 보자면, 부부갈등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우울(김유선, 박종실, 김영희, 2018), 분노(도현심, 김민정, 최미경, 김상원, 조수정, 2012), 양육에서의 스트레스(김선희, 2017)를 유발하고 이를 매개로 부모의 양육 행동(노지운, 신나나, 2020; 박미진, 강지현, 2012)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즉 이 선행연구들은 부부간 하위체계가 부모-자녀 간 하위체계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자녀 간 하위체계 내에서 부모의 양육 행동은 자녀의 발달결과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역사적으로 부모의 양육 행동은 아동의 발달을 설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환경 변인으로 간주 되어왔다.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효진과 이시자의 연구(2021)에서 유아 어머니의 양육 행동 중 과보호와 권위주의적 통제는 유아의 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연과 최지영의 연구(2022)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강압적 통제 차원)과 관심 부족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양육 행동의 특성은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문영경의 연구(2021)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행동은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미희, 김정민, 그리고 김지현의 연구(2016)에서도 한국아동패널을 분석한 결과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으로 살펴본 부부관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긍정적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 행동은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행동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가족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부부 간 갈등은 부부관계라는 하위체계 내에서 작동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상적 양육에서의 스트레스

와 같은 부모의 정서적 특성을 매개로 부모의 양육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 행동은 부모-자녀 관계의 하위체계에서 직접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국정연, 최지영, 2022; 도현심 등 2012; 박미진, 강지현, 2012; 이형실, 2016; 한영숙, 2019)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Rutter(1990)는 아동 환경의 위험요소를 살펴볼 때 아동이 이를 경험하는 과정이나 메카니즘이 아동의 행동문제를 어떻게 증가시키는지의 변인 간 관계를 보다 치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부부갈등이 일상적 양육에서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부모의 양육 행동 중 어떤 측면에 어려움을 촉발함으로써 아동의 행동문제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일세기 동안 부모의 양육 행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두 축은 Baumrind의 이론에서 개발된 온정과 통제이다(Estlein, 2016; Segrin & Flora, 2018). 온정과 통제의 두 축을 교차하여 구분해낸 네 가지 양육방식은 유아의 발달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Estlein, 2016; Smetana, 2017). 하지만 Aunola, Nurmi, Onatsu-Arivilommi 그리고 Pulkkinen(1999)은 부모의 양육방식을 네 가지로 분류하는 Baumrind의 방식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왜 부모가 그러한 양육 스타일을 갖게 되었는지의 선행요건을 간과한다는 것, 그리고 부모의 양육방식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방적인 일 방향 실행이 아니라 부모와 유아 간 상호 오가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라는 점을 도외시한다는 점이다. Galambos, Barker 그리고 Almeida(2003)에 따르면, 부모의 통제(parental control)는 유아의 행동에 대한 규제 행동으로, 이는 일관된 방식으로 구사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유아의 행동에 대해 일관된 한계를 합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유아와의 의사소통에서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유아로 하여금 이에 적응하면서 자기통제력을 갖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부모가 부부갈등이나 일상적 양육에서의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과정에 부적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기 쉬운 특성 중 하나는 바로 양육 행동에서의 비밀관성이라 볼 수 있다.

일관성은 부모역할 수행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생산적인 전략 중 하나로서 이는 자녀에게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고 자녀와 관계하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해가는 과정이다. 가령, 부모는 자녀에게 소리 지르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고 자녀에게 일관되게 침착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 기제 중의 하나이다(Ceder, 2022). 이와 반대로 비밀관성은 유아에게 혼란을 일으킨다. 부모가 어느 날은 소리를 지르고, 또 어느 날은 냉정하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유아는 부모의 반응을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 인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양육자의 규칙이나 기대를 이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Whittle 등(2022)은 8세에서 13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비밀관적인 훈육 행동이 대뇌피질의 세션화를 감소시키는 등 아동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밝혀내었다.

결국, 부부갈등은 부부간 관계뿐 아니라 부모-자녀 간 관계에도 순차적 영향을 미치는데, 부부갈등에 따라 일상적 양육에서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이는 부모의 양육 행동에서 비밀관성을 증가시킬 것이라 추론된다. 부모는 부부간 하위체계의 갈등으로 심리적 부하가 높아져 자녀에 대한 양육 행동을 구사함에 있어 주의집중을 요하는 일관성을 흐트러뜨리기 쉽기 때문이다. 부모-자녀 상호작용 척도(Parent-Child Interaction; PCI)를 개발한 Hetherington은 부모의 양육 행동을 가족체계 관점에서 살펴본 종합 연구(Hetherington et al., 1992)에서 이혼과 재혼 과정을 겪은 부모들이나 한 부모 가정의 부모가 자녀를 다루는 방식에서 혼란스럽고 비밀관적인 특징이 관찰되었으며, 자녀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두드러진 난점 중 하나라고 결론지었다. 문경주(1995)는 Hetherington의 PCI척도를 기반으로 우울한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훈육 행동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비일관적 행동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내었다.

그동안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내재화,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 행동(강효진, 이시자, 2021)과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써 부부갈등(김유선 등 2018),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민미희 등 2016)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 중에는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 행동 간의 영향 관계(국정연, 최지영, 2022; 김선희, 2017; 노지운, 신나나, 2020)를 살펴보고 이들 변인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부부갈등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에서의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비일관적 양육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전혀 이루어진 바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연령을 통제한 후 부부갈등이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유아에게 나타내는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두 가지 변인이 부부갈등과 유아의 행동문제 간 관계를 각각 매개하는지 분석하며, 아울러 두 변인이 순차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부갈등이라는 부부간 하위체계의 영향이 자녀의 내재화, 외현화 행동문제로 이어지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부부간 하위체계가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에서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부모의 양육 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부모-자녀 간 하위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

부갈등이 아동이 행동문제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 양육에서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밝혀봄으로써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환경요인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앞에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토대로 수립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부부갈등, 어머니의 스트레스, 비일관적 양육 행동, 유아의 행동문제 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부갈등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개별 매개 및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는 각각 어떠한가?

2-1. 부부갈등이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개별 매개 및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는 각각 어떠한가?

2-2. 부부갈등이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개별 매개 및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는 각각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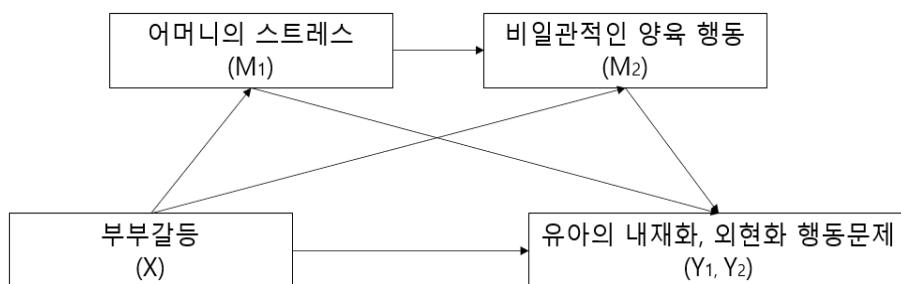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3 ~ 5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표집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9개 유치원을 편의표집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35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수집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25부를 연구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대상이 된 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47.7%)와 여아(52.3%) 중 여아의 비율이 약간 높았고, 유아의 연령은 만 5세(56.6%), 만 4세(27.1%), 만 3세(16.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출생순위는 첫째(34.2%)와 둘째(33.8%)가 유사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고, 외동(25.9%), 셋째(5.5%), 넷째 이상(0.6%)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20대(1.9%), 30대(57.5%), 40대(40.3%), 50대(0.3%)로 나타났고, 어머니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18.5%), 전문대학교 졸업(28.9%), 대학교 졸업(46.8%), 대학원 졸업 이상(5.8%)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취업(60.0%), 비취업(40.0%)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부부갈등

최규련(1995)이 개발한 척도를 이경희(1998)가 재구성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한유경(2022)의 부부갈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개인적 갈등영역(9문항), 부부 관계적 갈등영역(9문항), 공동생활 갈등영역(4문항), 제 3자 갈등영역(4문항)의 네 가지 하위요인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예로 개인적 갈등영역은 ‘나는 배우자가 화낼까 봐 두려워서 반대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와 나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 갈등을 느낀다’ 등이 있으며, 부부 관계적 갈등영역은 ‘나는 배우자에게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있다’, ‘애정이 나 관심, 지지 부족으로 인한 문제로 갈등을 느낀다’ 등이 있다. 공동생활 갈등영역은 ‘금전관리 및 소비의 문제로 갈등을 느낀다’, ‘가사노동 분담 등 역할에서의 문제로 갈등을 느낀다’ 등으로 구성되며, 제 3자 갈등영역은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로 갈등을 느낀다’, ‘직장생활로 인해 자녀보육과 관련된 문제로 갈등을 느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어머니가 평정하는 방식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방향이 다른 문항은 역채점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325)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325	100.0			325	100.0
유아 성별	남아	155	(47.7)	유아 출생순위	외동	84	(25.9)
	여아	170	(52.3)		첫째	111	(34.2)
유아 연령	만 3세	53	(16.3)		둘째	110	(33.8)
	만 4세	88	(27.1)		셋째	18	(5.5)
	만 5세	184	(56.6)		넷째 이상	2	(0.6)
어머니 연령	20~29세	6	(1.9)	어머니 직업	프리랜서	32	(9.9)
	30~39세	187	(57.5)		상업, 서비스업, 자영업, 숙련기술직	31	(9.5)
	40~49세	131	(40.3)		일반사무직(회사원, 공무원, 은행원 등)	64	(19.7)
	50세 이상	1	(0.3)		교육직(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교사)	42	(12.9)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60	(18.5)		관리직(사업체 간부직, 고급 공무원 등)	2	(0.6)
	전문대학교 졸업	94	(28.9)		전문직(의사, 법조인, 교수, 기업주 등)	13	(4.0)
	대학교 졸업	152	(46.8)		전업주부	130	(40.0)
	대학원 졸업 이상	19	(5.8)		기타	11	(3.4)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점수가 높아지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 전체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개인적 갈등영역 .80, 부부관계적 갈등영역 .86, 공동생활 갈등영역 .80, 제 3자 갈등영역 .72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에서의 스트레스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에서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의 문항을 안지영(2001)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 '아이가 나를 귀찮게 하고 칭얼대고 불평한다', '집안일을 하는데 끊임없이 걸리적 거린다', '개인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다루기가 어렵다' 등을 들 수 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적인 자녀 양육의 영역에서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90으로 나타났다.

3) 비일관적 양육 행동

비일관적 양육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Hetherington 등(1992)이 개발한 모-자녀 상호작용 척도인 PCI(Parent-Child Interaction) 척도를 문경주(1995)가 번안하고, 서은주(2009)가 수정 보완한 도구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비일관적 양육 행동은 모-자녀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 '아이에게 참을성 있게 대하지 않았다',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아이에게 겨주었다', '아이에게 말로만 혼내주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귀찮아서 혼내지 않았다', '아이가 이미 정해놓은 규칙을 깨는 것을 내버려두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1점 '없다'에서 7점 '하루 2번 이상'에 이르기까지의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자녀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비일관적임을 나타낸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81로 나타났다.

4) 유아의 행동문제

유아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발한 유아용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 1.5-5; CBCL)를 국내 표준화한 한국판 유아행동평가척도 부모용 K-CBCL 1.5-5 (Korea-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 1.5-5; 김영아, 이진, 문수중, 김유진, 오경자, 2009)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내재화 행동문제를 측정하는 정서적 반응성(9문항), 불안·우울(8문항), 신체 증상(11문항), 위축(8문항)과 외현화 행동문제를 측정하는 주의집중(5문항)과 공격행동(19문항)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을 살펴보면, 먼저 내재화 행동문제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반응성은 '안절부절 못한다',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등이 있으며, 불안·우울은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매우 불안해한다', '불행해 보이고 슬퍼하거나 우울해한다' 등이 있다. 신체증상은 '무관심하거나 의욕이 없다', '두통을 호소한다' 등으로 구성되며, 위축은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는 것을 피한다', '위축돼서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현화 행동문제의 하위영역인 주의집중은 '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을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등이 있으며, 공격행동은 '싸움을 많이 한다', '다른 사람들을 때린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0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2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의 3점 Likert 척도로 하위영역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의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 Cronbach's α .86,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 Cronbach's α .88로 나타났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v4.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

은 문항 간 내적 일관성 지수인 Cronbach's α 값으로 확인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의 특성 및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부갈등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유아의 연령을 통제한 후 Hayes(2013)가 제시한 PROCESS macro v4.2의 Model 6을 활용하여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확인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10,000회로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변인 및 그 하위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해당 분석에서는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자료의 정규성을 검토하였으며, 정규성은 왜도가 절대값 2보다 크지 않고, 첨도는 절대값 7보다 크지 않을 때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1). 분석 결과, 왜도는 $-.82 \sim 1.65$, 첨도는 $-.70 \sim 3.95$ 로 나타나 연구 변인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를 보면, 첫째,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고($r = .40, p < .001$), 비일관적 양육 행동이 높아지며($r = .29, p < .001$),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r = .30, p < .001$) 및 외현화 행동문제($r = .35, p < .001$)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비일관적 양육 행동 수준이 높고($r = .41, p < .001$),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r = .45, p < .001$) 및 외현화 행동문제($r = .62, p < .001$)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비일관적 양육 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r = .31, p < .001$) 및 외현화 행동문제($r = .44, p < .001$)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연령은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에서의 스트레스와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2. 부부갈등과 유아의 행동문제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개별 매개 및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PROCESS macro v4.2의 Model 6을 활용하여 부부갈등과 유아의 행동문제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개별 매개효과와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동시에 검증하는 방법을 실시하였다. 이때, 종속 변인인 유아의 행동문제는 유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N = 325$)

변인	1	2	3	4	5	6
1. 유아의 연령	1					
2. 부부갈등	-.02	1				
3. 어머니의 스트레스	-.23***	.40***	1			
4. 비일관적 양육 행동	-.08	.29***	.41***	1		
5. 내재화 행동문제	-.08	.30***	.45***	.31***	1	
6. 외현화 행동문제	-.18**	.35***	.62***	.44***	.69***	1
평균(표준편차)	4.40(.75)	2.13(.61)	2.26(.63)	1.96(.71)	.18(.16)	.26(.23)
최솟값 ~ 최댓값	3 ~ 5	1.08 ~ 3.88	1.00 ~ 4.75	1.00 ~ 5.20	.00 ~ .92	.00 ~ .96
왜도	-.82	.48	.44	1.65	1.30	1.05
첨도	-.70	-.24	.12	3.95	2.15	.47

* $p < .05$. ** $p < .01$. *** $p < .001$.

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와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의 두 가지 하위요인별로 각각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독립변인에 부부갈등, 종속변인에 각각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와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 그리고 제1 매개변인으로 어머니의 스트레스, 제2 매개변인으로 비일관적 양육 행동을 순서대로 투입하고 유아의 연령을 통제된 상태에서 Model 6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10,000회로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1) 부부갈등과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개별 매개 및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부부갈등과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 간 관계에서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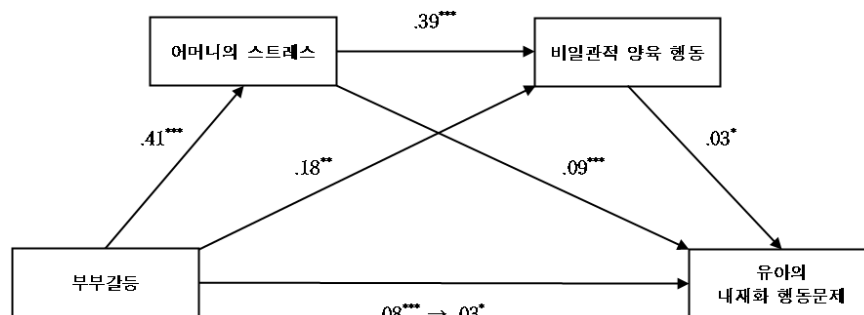
머니의 스트레스, 비일관적 양육 행동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Hayes(2013)가 제시한 PROCESS macro v4.2의 Model 6을 활용하였다. 각 경로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 및 그림 2로 제시하였다.

먼저, 부부갈등은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유의한 정적 영향($B = .08,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스트레스($B = .41, p < .001$)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B = .18,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비일관적 양육 행동($B = .39,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부부갈등이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처음보다는 약화되었

표 3. 부부갈등과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의 회귀분석 ($N = 325$)

	경로	B	$S.E.$	t	p	LLCI	ULCI
부부갈등	→ 내재화 행동문제	.08	.01	5.53***	.000	.05	.10
$F = 16.40^{***}, R^2 = .09$							
부부갈등	→ 어머니의 스트레스	.41	.05	8.00***	.000	.31	.51
$F = 43.01^{***}, R^2 = .21$							
부부갈등	→ 비일관적 양육 행동	.18	.06	2.75**	.006	.05	.30
어머니의 스트레스	→ 비일관적 양육 행동	.39	.06	6.09***	.000	.26	.52
$F = 24.24^{***}, R^2 = .18$							
부부갈등	→ 내재화 행동문제	.03	.01	2.13*	.033	.01	.06
어머니의 스트레스	→ 내재화 행동문제	.09	.01	6.05***	.000	.06	.12
비일관적 양육 행동	→ 내재화 행동문제	.03	.01	2.42*	.016	.01	.05
$F = 24.10^{***}, R^2 = .23$							

* $p < .05$. ** $p < .01$. ***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부부갈등과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순차적 이중매개 모형

으나 여전히 유의하게 유지되었다($B = .08, p < .001 \rightarrow B = .03, p < .05$). 또한 어머니의 스트레스($B = .09, p < .001$)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B = .03, p < .05$)이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직접 효과도 유의하였다.

부부갈등과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개별 매개 및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은 10,000회로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우선, 부부갈등이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총 효과($B = .08, 95\% \text{ CI } [.05, .10]$)와 직접 효과($B = .03, 95\% \text{ CI } [.01, .06]$)는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을 통해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B = .05, 95\% \text{ CI } [.03, .07]$)는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별 매개효과를 간접효과 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과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의 개별 매개효과($B = .03, 95\% \text{ CI } [.02, .05]$)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개별 매개효과($B = .01, 95\% \text{ CI } [.01, .02]$)는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간접효과 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과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순차

적 이중매개효과($B = .01, 95\% \text{ CI } [.01, .02]$)도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져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쳤고,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비일관적 양육 행동이 증가하여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고 순차적으로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증가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부갈등과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개별 매개 및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부부갈등과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 비일관적 양육 행동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5 및 그림 3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부부갈등은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3, p < .001$).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스트레스($B = .41, p < .001$)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B = .18,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비일관적 양육 행동($B = .39,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면 부부갈등이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사라지고($B = .03, ns$), 어머니의 스트레스($B = .18,$

표 4. 부부갈등과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bootstrapping 결과 ($N = 325, \text{bootstrap} =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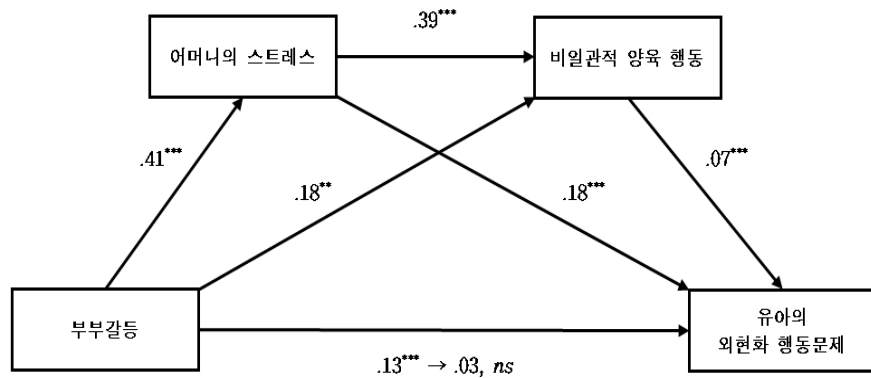
경로	B	$S.E.$	t	95% CI	
				LLCI	ULCI
총 효과	.08	.01	5.53***	.05	.10
직접 효과	.03	.01	2.13*	.01	.06
간접 효과	.05	.01		.03	.07
전체					
부부갈등→어머니의 스트레스→내재화 행동문제	.03	.01		.02	.05
부부갈등→비일관적 양육 행동→내재화 행동문제	.01	.00		.01	.02
부부갈등→어머니의 스트레스→비일관적 양육 행동→내재화 행동문제	.01	.00		.01	.02

* $p < .05$. *** $p < .001$.

표 5. 부부갈등과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의 회귀분석 ($N = 325$)

경로	B	$S.E.$	t	p	LLCI	ULCI
부부갈등 → 외현화 행동문제	.13	.02	6.68***	.000	.09	.17
$F = 28.13^{***}, R^2 = .15$						
부부갈등 → 어머니의 스트레스	.41	.05	8.00***	.000	.31	.51
$F = 43.01^{***}, R^2 = .21$						
부부갈등 → 비일관적 양육 행동	.18	.06	2.75**	.006	.05	.30
어머니의 스트레스 → 비일관적 양육 행동	.39	.06	6.09***	.000	.26	.52
$F = 24.24^{***}, R^2 = .18$						
부부갈등 → 외현화 행동문제	.03	.02	1.94	.053	-.01	.07
어머니의 스트레스 → 외현화 행동문제	.18	.02	9.61***	.000	.14	.21
비일관적 양육 행동 → 외현화 행동문제	.07	.02	4.63***	.000	.04	.10
$F = 60.68^{***}, R^2 = .43$						

** $p < .01$. *** $p < .001$.



** $p < .01$. *** $p < .001$.

그림 3. 부부갈등과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순차적 이중매개 모형

표 6. 부부갈등과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bootstrapping 결과 ($N = 325$, bootstrap = 10,000)

경로	B	$S.E.$	t	95% CI	
				LLCI	ULCI
총 효과	.13	.02	6.68***	.09	.17
직접 효과	.03	.02	1.94	-.01	.07
간접 효과	.10	.02		.07	.13
부부갈등→어머니의 스트레스→외현화 행동문제	.08	.01		.05	.09
부부갈등→비일관적 양육 행동→외현화 행동문제	.01	.01		.01	.03
부부갈등→어머니의 스트레스→비일관적 양육 행동→외현화 행동문제	.01	.00		.01	.02

*** $p < .001$.

$p < .001$)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B = .07$, $p < .001$)이 미치는 효과만 유의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과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개별 매개

및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은 10,000회로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우선, 부부갈등이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총 효과($B = .13$, 95% CI [.09, .17])는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직접 효과($B = .03$, 95% CI [-.01, .07])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을 통해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B = .10$, 95% CI [.07, .13])는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별 매개효과를 간접효과 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과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의 개별 매개효과($B = .08$, 95% CI [.05, .09])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개별 매개효과($B = .01$, 95% CI [.01, .03])는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간접효과 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과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B = .01$, 95% CI [.01, .02])는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져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쳤고,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비일관적 양육 행동이 증가하여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고, 순차적으로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증가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부부간 관계의 특성은 부모의 심리 정서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부모의 역할 행동에 반영되어 부모-자녀 간 관계에 순차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족체계이론에서는 가족관계를 단일체계로 간주하기보다

는 부부관계 하위체계, 부모-자녀 관계 하위체계, 형제자매 하위체계 등 여러 가지 하위체계 간 역동을 보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부갈등이 부모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쳐 유아의 행동문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부모의 스트레스가 이들의 양육 행동 중 어떤 측면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양육 행동의 특성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부모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이에 따라 부모는 양육 행동에서 비일관성을 띄기 쉬우며 그 결과 유아의 행동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변인 간 순차적인 매개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부갈등이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개별매개효과는 각각 어떠한지,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의 순차매개효과는 어떠한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수도권에서 편의 표집된 유아 기관의 만 3 ~ 5세 유아의 어머니 32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행동문제는 부부갈등,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에서의 스트레스, 어머니의 비일관적 양육 행동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행동문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갈등과 유아의 행동문제 간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김동진 등 2018; 임선아, 2019; 한영숙, 2019)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행동문제 간 관계를 밝힌 안지영의 연구(2001)와도 일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비일관적 양육 행동과 유아의 행동문제 간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비일관적 사회화가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Mirabile

의 연구(201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생각하고 추론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발달과 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힌 Whittle 등의 연구(2022)와 궤를 같이하는 결과이다.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 행동은 유아로 하여금 부모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환경에 대한 자기통제력을 키우는 것을 방해하여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행동문제로 이어진다고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부갈등은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간접적으로도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이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김형주, 이주리의 연구(2022)와 일관된 것이며,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김동진 등의 연구(2018),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김규량, 이형실의 연구(2018) 결과와 궤를 같이한다.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는 유아가 위축, 우울,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라는 부부간 하위체계의 특성이 어머니의 심리적 과정과 양육 행동을 통해 부모-자녀 간 하위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 아동의 발달특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궤적을 보여준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Benson, Buehler 그리고 Gerard의 연구(2008)에서 부부갈등이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 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지지한다.

셋째, 부부갈등이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매개변인을 투입할 경우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에,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스트레스

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김동진 등의 연구(2018)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하여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김유선 등(2018)이나 임선아의 단기종단 분석연구(2019), 부부갈등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하여 적대적, 공격적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김지윤, 도현심, 김민정의 연구(2008)와 궤를 같이한다.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우울(도현심 등, 2012), 어머니의 양육 행동(노지운, 신나나, 2020; 한유경, 신나나, 2023)을 매개로 유아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부갈등이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외현화 행동문제에는 어머니의 우울과 더불어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송명숙의 연구(2016) 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대로,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 행동(이경님, 2004), 갈등적 공동양육(전선영, 이희선, 2020; 한영숙, 2019)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함께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외현화 행동문제는 유아가 또래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충동적, 공격적, 거부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일관적 양육 행동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된 본 연구의 결과는 Benson 등의 연구(2008)에서 부부갈등이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 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관된 결과임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를 높이고,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비일관적인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인 매개를 통해 부부갈등이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 내 하위체계 간의 경계나 관계가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보다 하위체계 간에 분위기, 정서, 행동이 전이된다(Dunn, O'Connor, & Cheng, 2005)는 가족체계이론의 ‘여파(spillover)’ 개념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 행동은 부부갈등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여파 과정(spillover process)’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매커니즘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선행연구는 부모의 양육 행동을 온정과 통제라는 두 가지 차원(Lindsey & Mize, 2001)을 중심으로만 다루어 왔다는 비판(Margolin, Oliver, & Medina, 2001)이 제기되어 왔다. 부부갈등이 여파를 미치는 부모의 양육 행동 차원을 수용(acceptance), 엄격함(harshness), 침해(intrusiveness), 그리고 비밀관성(inconsistency)의 네 가지 차원으로 넓혀볼 필요가 있다는 Stone, Buehler 그리고 Barber(2002)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밀관적 양육 행동에 여파를 미치는지, 그리고 이 순차적 매개효과가 부부갈등과 유아의 행동문제 간 관계에 유의하게 작용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부부갈등과 유아의 행동문제 사이에서 일상적 양육에서 경험되는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밀관적인 양육 행동이 순차적인 영향력이 있는 요인이라고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행동문제를 줄이기 위한 개입의 방향으로 부부갈등을 직접 중재하는 외에 부부간 문제가 여파를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비밀관적인 양육 행동의 개선에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유아의 행동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체계이론의 ‘여파’ 개념을 토대로 부부갈등의 순차적인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은 유아의 어머니로 연구 변인이 모두 어머니의 인식을 토대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부부갈등과 양육 행동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순차적인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유아의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 연구대상으로 다루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으로 유아의 연령을 통제한 후 유아의 환경 변인들만 연구설계에 포함시켰다. 향후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과 같은 개인적인 변인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진행되었다. 유아의 행동문제는 연령이 높아져도 지속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유아기의 급격한 발달특성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특성이 종단적으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들의 영향력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부부간 하위체계와 부모-자녀 하위체계 간 여파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관계로 설계하여 분석해 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 행동을 비밀관성 차원으로 살펴보았으며, 부부갈등이 일상적 양육에서의 스트레스와 비밀관적 양육 행동을 통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보았다는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 강수경 (2021). 부부갈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동양육과 양육스트레스의 이중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41(3), 317-338.
<https://doi.org/10.18023/kjece.2021.41.3.013>
- 강효진, 이시자 (2021).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완벽주의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8(3), 117-140.
<https://doi.org/10.22155/JFECE.28.3.117.140>
- 국정연, 최지영 (2022).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역기능적 양육의 강압적 통제와 관심 부족을 매개로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26(2), 259-280.
<https://doi.org/10.21459/kccr.2022.26.2.259>
- 김규량, 이형실 (2018). 부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 *융합정보논문지*, 8(6), 343-351.
<https://doi.org/10.22156/CS4SMB.2018.8.6.343>
- 김동진, 전효정, 고은경 (2018).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단기종단연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의 적용. *인지*

- 발달중재학회지, 9(3), 27-50.
<https://doi.org/10.21197/JCEI.9.3.2>
- 김선희 (2017). 저소득층 가정 유아의 행동문제에 대한 부부 갈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종단적 영향. *유아교육연구*, 37(5), 57-78.
<https://doi.org/10.18023/kjece.2017.37.5.003>
- 김영아, 이진, 문수중, 김유진, 오경자 (2009). 한국판 CBCL 1.5-5의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8(1), 117-136.
<https://doi.org/10.15842/kjcp.2009.28.1.007>
- 김유선, 박종실, 김영희 (2018). 부모의 부부갈등, 우울,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5(1), 135-155.
- 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부부갈등과 유아의 기질 및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133-150.
- 김형주, 이주리 (2022). 유아기 자녀의 문제행동, 어머니 원가족 건강성, 자기분화, 부부갈등 간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2), 83-103.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12.83>
- 노지운, 신나나 (2020). 부부갈등이 아동의 실행기능, 정서조절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수면의 매개적 역할. *아동학회지*, 41(6), 51-66.
<https://doi.org/10.5723/kjcs.2020.41.6.51>
- 도현심, 김민정, 최미경, 김상원, 조수정 (2012).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3(2), 145-164.
<https://doi.org/10.5723/kjcs.2012.33.2.145>
- 문경주 (1995).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부적응간의 관계: 모-자 상호행동 관찰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영경 (2021).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주의조절과 억제통제의 병렬 매개효과 검증. *한국영유아보육학*, 131, 113-134.
<https://doi.org/10.37918/kce.2021.11.131.113>
- 민미희, 김정민, 김지현 (2016). 부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긍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6), 103-121.
<https://doi.org/10.14698/jkcce.2016.12.06.103>
- 박미진, 강지현 (2012). 유아의 기질, 부부갈등, 부모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 행동장애 연구, 28(4), 331-352.
- 서은주 (2009).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어머니의 성인 애착, 자아존중감, 모-자녀 상호작용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명숙 (2016).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우울과 부부갈등, 양육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8(4), 39-56.
-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남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행동문제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63-73.
- 이경희 (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형실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20(3), 17-28.
- 임선아 (2019). 모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우울감을 매개하여 영유아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종단 관계 검증. *한국영유아보육학*, 117, 51-71.
<https://doi.org/10.37918/kce.2019.07.117.51>
- 전선영, 이희선 (2020). 부모의 부부갈등 및 공동양육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2), 1037-1062.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2.1037>
- 최규련 (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 한영숙 (2019). 부부갈등, 부모공동양육, 아동의 내재적·외현적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 *아동학회지*, 40(4), 109-122. <https://doi.org/10.5723/kjcs.2019.40.4.109>
- 한유경 (2022).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우울, 부부갈등 및 긍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유경, 신나나 (2023).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우울, 부부갈등 및 긍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30(1), 139-156.
<https://doi.org/10.15284/kjhd.2023.30.1.139>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BA preschool forms &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unola, K., Nummi, J. E., Onatsu-Arivilommi, T., & Pulkkinen, L. (1999). The role of parents' self-esteem, mastery-orientation and social background in their parenting style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0(4), 307-317.
<https://doi.org/10.1111/1467-9450.404131>
- Benson, M. J., Buehler, C., & Gerard, J. M. (2008). Interparental hostility and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 Spillover via maternal acceptance, harshness, inconsistency, and intrusivenes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9(3), 428-454.
<https://doi.org/10.1177/0272431608316602>
- Ceder, J. (2022, March 08). Why does consistency matter in parenting? *Verywell Family*. Retrieved July 8, 2023, from <https://www.verywellfamily.com/why-does-consi>

- stency-matter-in-parenting-4135227
- Cox, M., Paley, B., & Harter, K. (2001).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J. H. Grych, & F. D. Fincham (Eds.),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pp. 249-272).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0.tb02889.x>
- Dadds, M. R., & Powell, M. B. (1991). The relationship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global marital adjustment to aggression, anxiety, and immaturity in aggressive and nonclinic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 553-567.
<https://doi.org/10.1007/BF00925820>
- Denham, S. A., Mitchell-Copeland, J., Strandberg, K., Auerbach, S., & Blair, K. (1997).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emotional compete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Motivation and Emotion*, 21, 65-86.
<https://doi.org/10.1023/A:1024426431247>
- Dunn, J., O'Connor, T. G., & Cheng, H. (2005). Children's responses to conflict between their different parents: Mothers, stepfathers, nonresident fathers, and non-resident stepmother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4(2), 223-234.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3402_2
- Egger, H. L., & Angold, A. (2006). Common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in preschool children: Presentation, nosology, and epidemi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3-4), 313-337.
<https://doi.org/10.1111/j.1469-7610.2006.01618.x>
- Eisenberg, N., Fabes, R. A., Carlo, G., Troyer, D., Speer, A., Karbon, M., & Switzer, G. (1992). The relations of maternal practices and characteristics to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siveness. *Child Development*, 63(3), 593-602.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2.tb01648.x>
- Estlein, R. (2016). Parenting styles. In C. Shehan (Ed.), *Encyclopedia of family studies* (pp. 1567-1569). NJ: Wiley-Blackwell.
- Galambos, N. L., Barker, E. T., & Almeida, D. M. (2003). Parents do matter: Trajectories of change in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4(2), 578-594.
<https://doi.org/10.1111/1467-8624.7402017>
- Halpern, L. F. (2004). The relations of coping and family environment to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5(4), 399-421.
<https://doi.org/10.1016/j.appdev.2004.06.001>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Hetherington, E. M., Clingempeel, W. G., Anderson, E. R., Deal, J. E., Hagan, M. S., Hollier, E. N., Lindner, M. S., MacCoby, E. E., Brown, J. C., O'Connor, T. G., Eisenberg, M., Rice, A. M., & Bennion, L. D. (1992). Coping with marital transitions: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7(2/3), i+iii-vii+1-238.
<https://www.jstor.org/stable/1166050>
- Kerig, K. P. (2019). *Handbook of parenting (Vol. 3): Being and becoming a parent* (3rd ed.). New York: Routledge.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opp, C. B. (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43-354. <https://doi.org/10.1037/0012-1649.25.3.343>
- Lindsey, E. W., & Mize, J. (2001). Interparental agreement, parent-child responsiveness,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Family Relations*, 50(4), 348-354.
<https://www.jstor.org/stable/585793>
- Margolin, G., Oliver, P. H., & Medina, A. M. (2001). Conceptual issues in understanding the relation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Integrating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nd risk/resilience perspectives. In J. H. Grych, & F. D. Fincham (Eds.),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pp. 9-38).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0511527838.003>
- Mesman, J., Bongers, I. L., & Koot, H. M. (2001). Preschool developmental pathways to pre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5), 679-689.
<https://doi.org/10.1111/1469-7610.00763>
- Mirabile, S. P. (2014). Parents' inconsistent emotion socialization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adjust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5(5), 392-400.
<http://doi.org/10.1016/j.appdev.2014.06.003>
- Morgan, P. L., Farkas, G., & Wu, Q. (2008). Kindergarten predictors of recurring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sychopathology in the third and fifth grade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17(2), 67-79.
<https://doi.org/10.1177/1063426608324724>
- Rutter, M. (1990).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 H. Nue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pp. 181-214).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grin, C., & Flora, J. (2018). *Family communication*. New York: Routledg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ttps://doi.org/10.4324/9781351132596>
- Smetana, J. G. (2017). Current research on parenting styles, dimensions, and belief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5, 19-25. <https://doi.org/10.1016/j.copsyc.2017.02.012>
- Stone, G., Buehler, C., & Barber, B. K. (2002). Interparental conflic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youth problem behavior.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53-9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0422-003>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N. A. Fox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59, Serial No. 240, pp. 25-52). <https://doi.org/10.2307/1166137>
- Whittle, S., Pozzi, E., Rakesh, D., Kim, J. M., Yap, M. B. H, Schwartz, O. S., Youssef, G., Allen, N. B., & Vijayakumar, N. (2022). Harsh and inconsistent parental discipline is associated with altered cortical development in children. *Biological Psychiatry: Cognitive Neuroscience and Neuroimaging*, 7(10), 989-997.
<https://doi.org/10.1016/j.bpsc.2022.02.001>